

# 사건으로 보는 옛이야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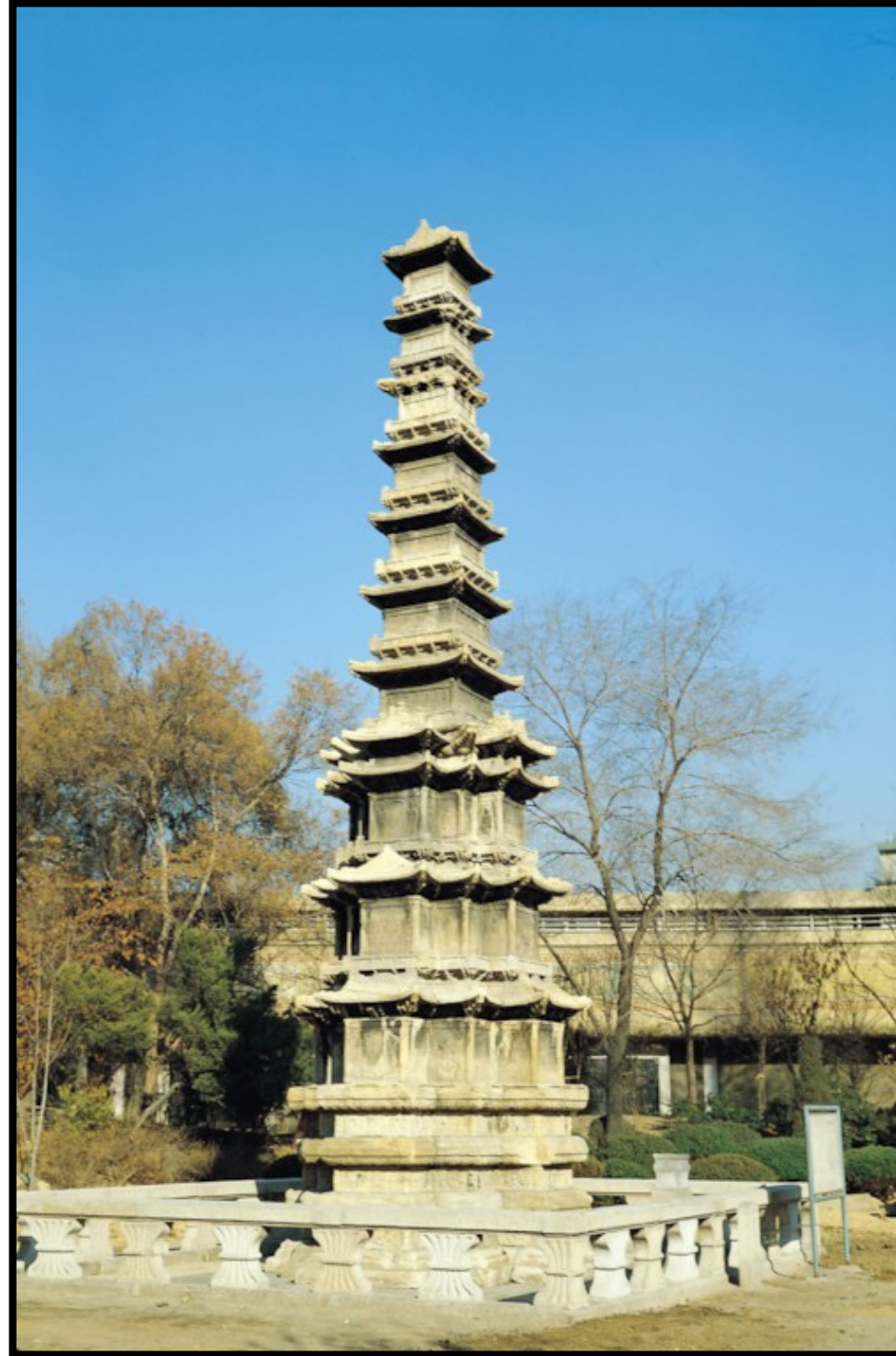
## 8주. 문학이 사건이 되다

3차시. 18세기 낭만 지식인: '백탑파'

### 학습목표

1. 조선 후기 지식인 모임 '백탑파'에 대해 말할 수 있다.
2. '백탑파' 문인들이 지향하는 세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
## '백탑파'의 유래



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탑골공원 안에 있는 조선시대 10층석탑



## '백탑파' 유래

### 백탑

- 서울 종로2가 30번지 탑골(탑이 있던 동네)공원 내 '원각사지 10층 석탑.'
- 흰 대리석 탑이라 하여 '백탑(白塔)'으로도 불림
- 백탑은 세조(世祖)가 1465년 탑골 공원에 원각사(圓覺寺)를 짓고 1467년 높이 12m 되는 대리석으로 만든 원각사탑
- 연산군(燕山君) 시대에 사찰은 없어지고 탑(塔)만 남음
- 탑이 남아 있어 탑골, 탑동(塔洞)으로 불림

## '백탑파'란

### 백탑파

- 18세기 정조(正祖) 시대,  
탑골 주변에 수재들이 모여 모임을 형성
- 박지원, 이덕무, 이서구, 서상수, 유득공,  
유금 등과 저동에 살던 홍대용 백동수,  
필동에 살던 박제가도 합류
- 조선 사회 변혁의 꿈을 키웠던 그들이 바로 백탑파



원각사 10층 석탑은 현재는 탑을 보호하기  
위해 유리벽을 세워 보호

## ‘백답파’란

### 백답파

“한양의 진보적인 북학파 지식인들, 실사구시를 주창”

- 지배 이념으로서 관념적으로만 흐르던 주자(朱子)의 학설을 따르기보다
- 이용 후생의 학문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개선코자 한 실학파
-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외면하지 말고,
- 현실을 바로 보고 배울 것은 배우자

※ 실사구시(實事求是) : 이념적인 공리공담에서 벗어나 객관적 사실을 통해 정확한 판단과 해답을 찾자!!



## 🔍 '백탑파'의 인물들



청나라 엄성이 그린  
홍대용(1731~1783) 초상



연암 박지원 (1737~1805) 초상



청나라 화가 나빙이 그린  
박제가(1750~1805) 초상

유득공(1748~1807) • 백동수(1743~1816) • 이덕무(1741~1793)

(사진 출처: 주니어 김영사)



## ‘백탑파’ 일화

“빙 두른 도성 가운데가 백탑이다. 멀리서 바라보면 뻐죽 솟아 설죽에 새순이 돋은 것 같다. 이곳이 바로 원각사 터다 지난 무자년(1768)과 기축년(1769) 내 나이 열여덟 열아홉이었는데, 박중미(박지원) 선생의 문장이 뛰어나 당대에 명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백탑 북쪽으로 찾아 뵈었다. 선생은 내가 온다는 말을 듣고 옷을 걸치고 나와 맞아 벗처럼 손을 잡았다. 마침내 지은 글을 다 꺼내어 읽어 주셨다. 직접 쌀을 씻고 불을 때어 차항아리에 밥을 해서는 흰 도자기에 담아내어 흰 밥상에 얹어 왔다.”

-박제가, <백탑청연집서> 중에서



## ‘백담파’ 일화

“그때에 형암(이덕무)의 집이 그 북쪽에 마주하고 낙서(이서구)의 행랑이 그 창쪽에 있으며, 수십 보 떨어진 곳에 관재(서상수)의 서루가 있었다. 또 북동으로 꺾으면 유금과 유득공의 거처다. 나는 이에 한 번 가서 돌아올 줄 몰랐다. 수십 일을 머물면서 시문과 척독을 지어 문득 한 질을 이루었다, 술과 음식을 징발하여 밤에서 낮을 이었다.”

-박제가, <백담청연집서> 중에서





## ‘백탑파’일화

“일찍이 장가드는 날 저녁, 처가의 총마를 빌려 안장을 풀어 타고서 종 하나만 데리고 갔다. 이때 달빛이 길에 가득하였다. 이현궁 앞에서 서쪽으로 말을 달려 철교의 주점에 이르러 술을 마셨다, 북소리가 세 번 울렸다. 마침내 여러 벗들의 집을 두루 찾아 탑을 돌아 나갔다.”

-박제가, <백탑청연집서> 중에서

### ※ <백탑청연집>

- 이희경이 백탑에서 박지원, 이덕무, 박제가 등이 지은 시문, 척독 모아 편집한 글.

제목은 박제가가 붙임.

- ‘백탑에서의 맑은 인연’이라는 뜻 담아 < 백탑청연집>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서문을 지었다.



## ‘백담파’ 일화

“예전에 어르신께서 저와 한 마을에 사실 적에 어느 눈 내리는 밤 어르신을 찾아 뵈 적이 있었지요. 어르신께서는 저를 위해 손수 술을 데우셨고, 저 또한 떡을 손으로 집고 질화로에 구웠지요, 마침 불 기운이 솟구쳐 올라 손이 몹시 뜨거운 바람에 떡을 잣더미 속에 자꾸 떨어뜨리곤 하니 서로 바라보고 몹시 즐거워했었지요.”

-이서구, <하양방우기>

## '백탑파' 인물들

### 홍대용 (1731~1783)

- 노론 명망가 출신, 당대 최고의 재야 과학자(지전설, 우주 무한론 주장)
- 수학과 자연과학, 천문학에 관심을 쏟음
  - 청과 서양의 발달된 문물의 근원이 관측기구와 수학적 접근방법에 있다고 봄
- 1765년(영조 41) 서정장관으로 청나라에 연행 가는 숙부 따라 북경 다녀옴.
- 이때 청나라 고증학과 서양의 문물을 접하고 사상체계에 변화를 겪게 됨.

※ 놀고 먹는 자는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형벌을 주고, 재주와 학식이 있는 자는 신분의 고하에 관계 없이 중직에 임명하며, 어떤 신분이라도 교육의 기회를 주고, 과거제 대신 공거제를 실시해 능력 있으면 중용해야 한다.(평등애)

※ 현실세계의 중심이 중국 아닌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.(상대적 관점, 민족 주체성)

## '백탑파' 인물들

### 홍대용의 <의산문답>

- 중국 동북지방 의무려산을 배경으로 허자(虛子)와 실옹(實翁)의 문답 형식 글
- 홍대용의 사상을 집대성한 철학소설로, 지전설, 인류의 기원, 계급과 국가의 형성 등에서부터 천문·산수·과학·지진·온천·기상 현상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논의
- 화(華)'와 '이(夷)'는 존비나 상하관계가 아닌 서로 다를 것이 없는 대등한 것으로 다만 도덕과 문화의 수준에 달려 있다(중국 화이론 부정, 상대주의적 관점, 평등)

※ 허자: 조선의 선비로, 30년간 주자학과 성리학만을 공부한 사람

※ 실옹: 새로운 학문을 터득한 사람.

※ 허자는 30년 공부로 깨달은 바를 유세(遊說)하여 조선에서 지기(知己)를 얻지 못하자 중국 연경에서 선비들과의 담론으로 두 달을 보낸다. 결국 실망하고 귀국하는 길에 두 나라의 경계인 의무려산에서 실옹과 만나는데, 거기서 그의 30년 학문은 허학(虛學)으로 날뛴이 해체된다.



## ‘백탑파’ 인물들

### 박제가(1750~1805)

- 11세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가 생계를 잇는 가난한 삶.
- 호는 초정. 서얼 출신
- 18세인 1768년(영조 44년) 연암과 만나 연암의 문인의 됄(<백탑청연집>)
- 1778년 중국 여행을 시작으로 4차례 여행을 다녀오면서 외국문물 수용에 적극적
- 여행에서 경험한 실용적인 학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조선 개혁안 『북학의』
- 1779년 규장각 검서관직에 초대 검서관 임명(이덕무, 유득공, 서이수-규장각 사검서)

## '백탑파' 인물들

### 박제가 『북학의』

- 백성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자!!(도덕적 명분보다 실사구시 강조)
- 백성들의 궁핍한 생활은 상업 활동 없이는 개선되기 힘들다고 생각
- 국내외 상업과 무역의 이점, 농업기술 개량, 양반의 상공업 종사 등 강력히 주장
- 수레를 보급해서 상업을 발달시킨 후 여러 나라와 무역

※ “오늘날 백성의 삶은 날로 곤궁해지고 쓸 재물은 나날이 고갈되고 있다. 그런데도 사대부들이 팔짱만 끼고서 구제하지 않아야 하겠는가? 아니면 과거의 안습에 안주하여 편안히 누리면서 모른 체 해야 하겠는가?” - 박제가 『북학의』 중에서





## ‘백담파’ 인물들

### 연암이 초정에게 보낸편지

진채에서 사정이 좋지 않네. 무릎을 구부린 지 오래되고 보니  
어떤 좋은 벼슬도 나만은 못할 것일세  
내 급히 절하네. 많으면 많을 수록 좋으오  
또 호리병을 보내니 술을 담아 보내줄 수 있겠는가?

### 초정이 연암에게 답장

열흘 장맛비에 도시락 싸 들고 찾아가지 못해 죄송합니다.  
공방 이백을 하인 편에 들려 보냅니다.  
술병에는 까마귀만 따라갈 겁니다.  
세상에 양주의 학은 없는 법이지요

## '백담파'의 인물들

### 이덕무(1741~1793)

- 본관은 전주, 호는 아정(雅亭)·청장관(靑莊館)·영처(嬰處) 등
- 서얼 출신, 허약하고 병치레가 잦으며 가난에 시달림
- 평생 글을 읽고 사는 것이 소원, 스스로를 간서치(看書痴, 책만 보는 바보)라 함
- 1778년(정조 2) 서장관으로 연경에 다녀옴. 이때 많은 서적 수입
- 1779년, 39세에 규장각 검서관 - 출판하는 모든 책을 교정하고 검열
- 규장각 경시대회에서 여러 차례 장원
- 역사, 지리, 풍속, 신변잡기 등 다양하고 방대한 저술로 18세기 고증과 박학의 대가
- 1793년 병사. 정조는 그의 공적을 기념해 장례비와 유고집 <아정유고 雅亭遺稿> 발행



# **‘나’를 성찰하고 세상을 바라 보기**

- 1. 백탑파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?**
- 2. 만약 여러분이 백탑파와 같은 모임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?**
- 3. 여러분이 백탑파라면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?**